헛간에서 발견된 람보르기니, 160만 달러에 낙찰

독일의 헛간에서 발견된 전설적인 슈퍼카 람보르기니 미우라가 예상을 뛰어넘는 가격으로 낙찰돼 관심을 모았다.

클래식카 전문 경매사 RM소더비는 지난 24일 영국 런던 켄싱턴에서 열린 '제13회 런던 옥션' 에서 1969년식 람보르기니 미우라(섀시 번호 4245)가 124만8,125파운드(약 16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낙찰된 람보르기니 미우라 P400S 버전은 1968년부터 1971년까지 단 338대만 생산된 모델로 희소가치가 높아 경매 전부터 수집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특히 출시 후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주행거리가 1만8,032마일밖에 되지 않으며 모든 부품이 출시 당시 그대로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했다. 첫 주인이 양도받은 후 단 한 번의 도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M소더비 측은 이 차량이 1969년 이탈리아 볼로냐의 산타가타볼로녜세 공장을 나섰을 때와 같이 순정 사양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매에 출품된 람보르기니는 최근 독일 슈바르츠발트 지역의 숲속에서 발견됐다. 이 차량은 1971년 서독에서 광고전문가로 일했던 발터 베커라는 남성이 주문했다가 3년 뒤 아마추어 카레이서 한스 페터 베버에게 되팔았다. 베버는 2015년 사망 전까지 이 차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버 사망 이후 그가 남긴 미우라를 백방으로 수소문한 유가족은 올해 베버의 친구 소유의 농장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생산된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방치 기간이 비교적 짧아 상태는 매우 양호했다.

이 때문에 경매사가 당초 책정한 감정가 93만3,500파운드를 뛰어넘은 124만8,125파운드에 최종 낙찰될 수 있었다. 경매 참가자들은 24일 경매에서 미우라를 손에 쥐려는 수집가들의 입찰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고 입을 모았다.

바람 피운 남편 골탕 먹이려고

▲ 브랜디가 남편에게 전달한 동전들(왼쪽). 전 남편과 브랜디

친구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금을 모두 동전으로 건넨 여성의 사연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데일리메일이 전한 바에 따르면 두 아이의 엄마인 브랜디 리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했다. 결혼 파탄의 책임은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있었지만 법원은 남편에게 7,500달러의 재산 분할을 해주라고 명령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그녀는 한 가지 꾀를 떠올렸다. 분할금 전액을 모두 동전으로 지급해 이혼한 남편을 골탕 먹이겠다는 속셈이었다.

한걸음에 은행으로 달려간 그녀는 직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흔쾌히 그녀의 계획에 동참한 직원들은 160kg에 달하는 동전을 모두 세어 바꿔주었다. 브랜디는 이 동전을 다시 지폐로 바꾸지도 못하도록 돌돌 말린 종이띠를 풀어 양동이에 담아 전 남편에게 전달했다.

이후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남편에게 "네가 집에 앉아 동전을 세고 있는 동안, 네가 버리고 간 어린 두 아이와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라!" 고 전했다.

브랜디의 사연이 전해지자 수천 명의 SNS 이용자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 "남편 표정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라며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이혼법률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 이후 습득한 재산을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 갖도록 하고 있다.

죽음 앞둔 아빠와 함께 웨딩 촬영한 두 딸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에 사는 핼버트 씨는 지난 4월 18일 뇌종양의 일종인 악성 교모세포종 4기 진단을 받았다. 전체 뇌종양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교모세포종은 악성도가 매우 높은 암으로, 미국 암 사망 원인 4위로 꼽힌다. 정치인 에드워드 케네디와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도 이 질병으로 사망했다.

암 진단 이후 핼버트 씨의 상태는 날로 악화됐고 급기야 지난 9월에는 뇌척수액까지 암이 전이되면서 1년 정도였던 기대수명이 2, 3개월로 단축됐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딸이 있다. 가족들은 슬픔에 빠졌다. 그리고 딸 카일리(18)와 애슐리(16)는 남은 시간을 뜻깊게 쓰기로 했다. 자신들의 결혼식을 보지 못할 아버지를 위해 웨딩 촬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두 딸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등장해 마치 진짜 결혼식 피로연을 여는 것처럼 번갈아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 핼버트 부녀의 얼굴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이들을 지켜보던 수십 명의 이웃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핼버트의 아내 니콜 핼버트 씨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날이었지만 영원히 기억될 순간이었다." 면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했다." 고 말했다.

이어 두 딸이 장성해 결혼할 때까지 이날 촬영한 영상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남편이 앓고 있는 교모세포종에 대한 관심과 연구 투자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진 일부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보다,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말처럼 딸들이 훗날 오늘을 떠올리며 죽음이 아닌 삶을 생각하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